

# 신약개발, 바이오산업 진출로 新의약품 전문기업으로 도약하는 대원제약(주)

대원제약(주)은 창사이래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건실한 기업이지만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말미암아 최근 몇 년간 매출과 이익이 정체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대원제약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꾸준한 체질개선노력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현재는 세계적인 소염진통신약인 DW-330을 비롯한 신약개발과 단백질전달체 기술을 활용한 천식치료제 FHT-CT4의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본격적인 바이오산업 진출 등을 토대로 하여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첨단제약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편집자 註>



백승호 사장

## 상위제약사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 설정

대원제약은 지난 1958년에 설립된 이래 50여년간 '인류건강의 실현'이라는 경영이념을 근간으로 '순수 치료의약품 전문기업'의 한 길만을 걸어온 중견제약회사이다. 대원제약은 현재 100여개의 치료제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25개 영업지점을 중심으로 병원, 의원 영업분야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2005년말 현재 470억원대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상위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해 '신대원 2008, 매출 1천억원 달성'이라는 사업 Vision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2008년까지 Vision 달성을 위한 사업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모든 업무프로세스를 성장 우선으로 전환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 각광받는 고혈압, 당뇨치료제 등 순환기약물과 비만 억제제 등 고부가가치의 이른바 QOL (Quality Of Life : 삶의 질)제품을 중심으로 한 신제품을 매

년 새롭게 출시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영업전략으로 이전과는 다른 비약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

## DW-330 임상 3상 완료, 고부가가치 신약 개발 사업 '추진'

대원제약의 매출 1천억원 달성을 위한 또 다른 복안은 신약 개발이다. DW-330은 대원제약과 일본의 산쿄사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NSAIDs계열의 세계적인 신물질 신약이다. 골관절염 치료제로 최초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 국내시장의 규모가 지난해에 약 2,300억 원대로 안정된 매출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임상 3상까지 완료되었으며, 임상결과 기존 소염진통제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허가 및 등록 작업을 연내 마무리 하고 2007년초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원제약의 또 다른 신약으로는 임상 3상을 완료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 임상을 계획중인 정맥마취신약 아쿠아폴주사제가 있다. 아쿠아폴은 수용성 프로포폴(Water soluble propofol) 제제의 신기술을 이용한 정맥 마취제 신약으로 기존 지용성 제품 대비 효과가 탁월하며



통증경감, 과량 투여로 인한 고지혈증 등 부작용도 최소화한 제품이다. 기존 주사제의 단점을 해결함으로써 그 동안 정체되어 온 정맥마취제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부문에 중점을 두어 대원제약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신약이 출시되는 내년부터 100억원대 이상의 거대 품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출 계획이다. 그 동안 의원부문 매출 의존도가 많았던 구조에서 탈피해 종합병원을 신규거래처로 집중 공략하고 다양한 제품의 매출을 유도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 시기에 발맞춰 비만, 순환기에 특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5대 품목을 집중 육성해 제품별 매출의 다변화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이다.

### 5대 전략품목 집중 육성, 내수수출 견조한 상승세 유지

신약개발과 함께 대원제약의 매출 상승을 견인할 부문은 바로 5대 전략품목의 육성이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약물이 각광을 받고 있다. 대원제약 또한 치료제 전문기업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치료제 등 순환기계 제품과 비만치료제 등 신제품을 출시해 성공적으로 관련시장에 진입했다.

5대품목은 진해제 ‘프리비투스’, 고혈압치료제 ‘원베를’, ‘에이판’, 항생제 ‘클래신’, 당뇨병치료제 ‘메리콜’로서 대원제약은 이들 5대 품목을 올해 연매출 30억원



이상을 달성할 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수출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대원제약은 현재 20여개국에 완제의약품 수출하고 있으며, 전략품목을 상용화 해 중남미,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고 매출 잠재력이 큰 시장 발굴에도 적극 뛰어들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의 신약개발 및 전략품목 상용화 시점이 맞물려 본격적인 매출 상승세는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 바이오산업 진출로 미래성장동력 마련

대원제약은 지난 4월 6일, 단백질 신약 바이오벤처인 포휴먼텍(주)과 공동으로 PTD(단백질전달체 ; Protein Transduction Domain)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천식치료제 FHT-CT4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천식 치료제 FHT-CT4는 면역질환에 효과가 있는 차세대 단백질 신약으로 연구 내용이 저명한 과학전문지인 네이처지에 소개될 정도로 공인받은 연구결과로서 전임상을 시작으로 제품개발이 시작되고, 대원제약은 개발된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획득함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천식 및 알러지와 관련된 질환은 세계적인 대기오염의 증가 추세에 기인하여 유병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치료제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이다. 대원제약은 치료제 전문기업으로 전통적으로 호흡기 계통의 약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번 공동연구개발로 인하여 관련 제품군의 성장추세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백질 및 유전자 신약 개발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벤처와의 제품 공동연구개발은 자회사인 메타바이오(주)를 통해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이후 두 번째 단계로서 바이오 신약연구개발에 대한 시금석 역할과 함께 회사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견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내실경영 실현

대원제약은 안정적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신의약품 개발 전문기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안정성과 성장성, 수익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리스크의 핵심 요인인 반품률을 대폭 개선해 왔다. 기업의 수준을 나타내는 부채비율, 유동성, 차입금의존도 등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상장회사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의 재무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무리한 사업확장 등을 위해 차입을 하지 않고 견실하게 기업을 경영해온 결과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5일에는 잔여 장기차입금 전액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무차입경영을 선언하였으며, 차입금 상환에 따른 이자비용 등의 감소로 주력하고 있는 R&D 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대원제약의 경영관은 내실경영과 현장경영이다.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의약품을 만드는 소명의식을 갖고 무리한 사업 확장 보다는 작지만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기업과 차별화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들이 업무시간의 상당 부분을 현장에서 보내고 있다. 이는 생생한 현장 상황을 바로 기업경영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문제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발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또한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투명경영을 위한 감사위원회제도의 자발적인 도입과 성문화된 배당규정을 정관에 명시하는 등 중소 제약회사로서는 선진적인 주주 중시경영도 실행하고 있다.

### 나눔과 봉사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

대원제약은 매년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의약품과 금품을 기부하여 왔으나 이러한 활동을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 5월 사내 봉사단체를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한 사내봉사단은 적십자사와 연계하여 임직원들이 월 1회방문 봉사활동,



기금후원, 의약품 지원 등 본격적인 이웃돕기 활동을 시작한다. 연말에 '나눔데이'라는 자선행사를 기획하여 전임직원이 자선행사에 참여하는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다. 또한, 건강관련 환경보호 캠페인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며 재난구호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 인재육성과 고객중심경영으로 지속적인 기업 성장 유지

대원제약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e-learning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등 교육 및 직원복지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대원제약은 조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자원으로 인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수년간 지식경영운동을 전개하는 등 인적자원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내 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더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더 나은 복지후생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이같이 대원제약은 획기적인 매출성장과 내부고객(종업원) 만족 및 수준향상을 첫번째 목표로 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집약하여 고객중심경영을 통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생각은 변화를 통해 현재의 위치에서 반드시 탈피하여 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우선 직원 개개인부터 변화와 혁신으로 일류가 되고 그러한 일류 직원이 일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며,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감동과 만족을 이끌어내서 이것을 원천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신 의약품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귀결되며, 대원제약(주)는 항상 전문성을 갖춘 기업,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